

## 자녀의 동거여부에 따른 부모부양실태와 정책과제

현대 산업사회는 도시 인구집중과 핵가족화, 인구의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급진적 변화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바 있는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의 64세 이하 비노인 가구주 8,260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부모의 생존 및 동거실태, 부모님을 모시게 된 동기와 부양에 따르는 어려움, 그리고 부모와의 접촉 및 연락 빈도 등의 분석을 통하여 비동거 부모의 부양실태를 파악하고, 부모부양에 따르는 경제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살펴보았다.

吳英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

### 1. 서론

개인의 일차적인 사회적 관계는 가족, 근친, 친구 등의 사람들과 형성된다. 노년기에 있어서는 일차적 집단과의 관계가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 되며, 이들과의 관계는 노인의 사회적 통합의 주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적응과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된다.

현대 산업사회는 도시 인구집중과 핵가족화, 인구의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급진적 변화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자녀간의 관계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하여도 편지, 전화, 방문 등에 의한 정기적 접촉으로 그들의 자녀와 많은 상

호작용을 누리고 있다.

본고에서는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가구조사자료에서 64세 이하 비노인 가구주 8,260명에 대한 부모의 생존 및 동거실태, 부모님을 모시게 된 동기와 부양에 따르는 어려움, 그리고 부모와의 접촉 및 연락 빈도를 통한 비동거 부모의 부양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부모의 생존 및 동거실태

### 가. 가구주 부모의 생존여부

가구주 부모의 생존현황은 부모 두 분이 모두 생존하고 있는 비율이 32.7%이며, 어머니 한 분만 생존하고 있는 비율이 32.9%, 아버지만 생존하고 있는 비율이 3.6%, 부모 두 분이 모두 사망한 가구주의 비율이 30.7%를 나타내고 있다. 즉, 부모가 한 분이라도 생존해 있는 비율은 69.2%이며, 어머니의 생존 비율(65.6%)이 아버지의 생존 비율(36.3%)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데 반하여, 성별 평균수명은 남자가 여자보다 낮은 데 기인하는 것이다.

### 나. 가구주의 부모와의 동거상태

가구주의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생존해 있는 경우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비율은 17.0%이며, 비동거는 83.0%이다. 지역별로는 읍·면부의 부모동거 비율(30.8%)이 동부지역(14.1%)에 비하여 약 2배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의 특성에 따른 부모 동거율은 가구주의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와의 동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생존 여부에 따른 동거실태에서 부모가 모두 생존한 가구주는 7.7%가 동거를 하고 있으며, 아버지만 생존한 경우는 22.4%, 어머니만 생존한 경우는 25.8%가 동거를 하고 있어 부모 두 분이 모두 생존한 경우보다는 한쪽의 부모만 생존하고 있을 때 부모와의 동거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가구주 부모의 생존여부

(단위: %)

구 분	부모 모두 생존	아버지만 생존	어머니만 생존	두분 모두 사망	기타	계(N)
전국	32.7	3.6	32.9	30.7	0.1	100.0(8,260)
동(洞)부	34.9	3.5	32.7	28.8	0.1	100.0(6,682)
읍(邑)·면(面)부	23.7	3.7	33.8	38.7	-	100.0(1,577)

자료: 정경희 외, 『1998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표 2. 가구주 특성별 부모와의 동거상태

(단위: %)

구 분		동거	비동거				계 (N)
			소계	다른 형제와 동거	부모님만 따로 사심	기타	
전 체 <sup>1)</sup>		17.0	83.0 (100.0)	39.0 (47.0)	42.3 (50.9)	1.7 (2.1)	100.0 (5,718)
지 역	동부	14.1	85.9	39.8	44.4	1.6	100.0 (4,752)
	읍·면부	30.8	69.2	35.3	31.7	2.2	100.0 ( 967)
연 령	34세 이하	11.9	88.1	39.2	46.7	2.1	100.0 (2,070)
	35~44세	16.4	83.6	36.8	45.1	1.7	100.0 (2,230)
	45~54세	21.7	78.3	42.1	35.3	1.0	100.0 (1,039)
	55~64세	35.0	65.0	42.2	21.0	1.9	100.0 ( 379)
교 육 준 수	중학교 이하	26.0	74.0	41.5	30.0	2.6	100.0 (1,172)
	고등학교	17.9	82.1	38.8	41.4	1.9	100.0 (2,379)
	전문대 이상	11.1	88.9	37.7	50.0	1.2	100.0 (2,158)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 모두 생존	7.7	92.3	32.5	58.2	1.6	100.0 (2,704)
	아버지만 생존	22.4	77.6	50.2	25.4	2.0	100.0 ( 296)
	어머니만 생존	25.6	74.4	44.3	28.3	1.8	100.0 (2,718)

주: 1) ( )안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가구주(4,784명)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비율임.  
 자료: 1998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가구주와 같이 동거하고 있지 않는 부모의 현재 동거상태를 보면 부모님만 따로 사는 경우가 50.9%이며, 가구주의 다른 형제와 동거하고 있는 부모가 47.0%, 그리고 기타 친척 및 비혈연과 동거하는 비율이 2.1%이다.

이를 전체 가구주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가구주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17.0%이며, 가구주의 다른 형제와 동거하는 부모 39.0%, 부모님만 따로 사시는 경우 42.3%, 그리고 기타가구가 1.7%이며 부모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자녀와 동거하는 부모가 전체의 절

반 이상이 되는 것이다.

#### 다. 가구주 부모의 건강상태

부모가 생존해 있는 가구주 부모의 건강상태를 살펴 보면 부모가 모두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2.8%이며, 어머니(만)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5.0%, 아버지(만)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6%, 그리고 두 분 모두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6%이다. 이를 부모의 성에 따른 건강상태로 나누어 보면 아버지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



표 3. 가구주 부모의 건강상태

(단위: %)

구 분	부모 모두 건강	아버지(만) 불편	어머니(만) 불편	두분 모두 불편	계(N)
전국	62.8	5.6	25.0	6.6	100.0(5,717)
동부	63.6	5.5	24.3	6.6	100.0(4,750)
읍·면부	58.7	6.1	28.5	6.7	100.0( 967)

자료: 정경희 외, 『1998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이 76.7%, 어머니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6.7%로서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연령이 어머니의 연령보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머니보다는 약 10% 포인트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비동거 가구주 부모와의 거주거리

가구주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어느

정도의 거리에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지를 살펴 보면, 부모가 계시는 곳까지의 거리를 차를 타고 3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비율이 31.7%로 가장 많았으며, 걸어서 30분~차를 타고 1시간 미만의 거리는 30.4%, 차를 타고 1~3시간 미만은 26.0%, 걸어서 30분 미만의 거리는 11.5%, 기타 0.4% 등으로 나타났다. 즉, 차를 타고 1시간 미만의

표 4. 비동거 가구주의 부모와의 거주거리

(단위: %)

거주거리	전국	동부	읍·면부
걸어서 30분 미만	11.5	9.7	23.0
걸어서 30분~차타고 1시간 미만	30.4	30.5	29.7
차타고 1~3시간 미만	26.0	26.8	21.3
차타고 3시간 이상	31.7	32.7	25.6
해외거주 및 기타	0.4	0.4	0.4
계 (N)	100.0 (4,743)	100.0 (4,076)	100.0 (666)

자료: 1998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거리에 부모가 거주하는 비율이 41.9%로 나타났다으며, 지역별로는 1시간 이내의 거리에 부모가 거주하는 비율이 읍·면부지역(52.7%)은 동부지역(40.2%)에 비하여 약 12%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 3. 동거 부모의 부양실태

#### 가. 부모를 모시게 된 동기

가구주의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생존해 있는 경우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비율은 17.0%인데 이들 응답자의 부모님을 모시게 된 동기를 살펴 보면 장남(외아들)이기 때문에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는 비율이 47.8%로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 본인이 원해서 17.6%, 부모님을 모실 사람이 없어서 13.0%,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11.2%, 노부모님이 원해서 9.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차이를 보면 읍·면부지역의 경우 장남(외아들)이기 때문에 동거한다는 비율과 본인이 원해서(모시고 싶어서) 부모와 동거한다는 비율이 각각 53.3%와 19.1%로 동부지역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35세 이상의 연령층 보다는 34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는 본인이 원해서 부모님을 모신다는 비율이 높는데, 이는 부모로부터 자녀양육이나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가구주의 부모를 모시게 된 동기<sup>1)</sup>

(단위: %)

구분		장남 (외아들) 이기 때문에	장녀 (외동딸) 이기 때문에	노부모 님이 원해서	본인이 원해서 (모시고 싶어서)	부모님 모실 사람이 없어서	부모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타	계 (N)
전체		47.8	0.3	9.1	17.6	13.0	11.2	0.9	100.0 (899)
지역	동부	45.3	0.4	9.9	16.9	13.8	12.9	0.8	100.0 (619)
	읍·면부	53.3	-	7.4	19.1	11.4	7.4	1.4	100.0 (280)
연령	34세 이하	33.8	0.4	7.8	25.6	13.9	16.7	1.8	100.0 (282)
	35~44세	47.3	-	11.4	16.6	14.5	9.7	0.6	100.0 (311)
	45~54세	59.8	-	8.3	14.3	10.1	7.5	-	100.0 (184)
	55~64세	63.5	1.2	7.5	6.9	12.1	7.4	1.5	100.0 (12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4.2	0.5	8.7	11.4	14.9	9.5	0.8	100.0 (371)
	고등학교	43.6	-	9.7	21.4	13.2	10.9	1.2	100.0 (377)
	전문대 이상	40.8	-	9.8	23.2	8.6	17.1	0.4	100.0 (142)

주: 1) 가구주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연령이 64세 이하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자료: 1998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즉, 부모와의 동거가 자녀로부터 부모에 대한 일방적인 원조의 경우가 아니라 상호적이거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원조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 나. 부모 동거부양의 어려움

가구주가 부모님을 모시는 데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냐는 질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54.1%였으며, 읍·면부지역(48.5%)보다 동부지역(56.7%)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님을 모시는 데 있어 각 항목별 어려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경제적 어려움이 38.2%로 가장 많으며, 부모와의 갈등(고부간 또는 친부모와의 갈등) 31.5%,

부모님의 건강 악화에 따른 수발의 어려움 31.4%, 눈치를 봐야 하는 어려움 27.9%, 부모 부양으로 인한 부부간의 의견충돌 11.6%로 나타났다.

#### 4. 비동거 부모의 부양실태

##### 가. 가구주 부모와의 직접 접촉빈도

가구주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비동거 부모와 직접 만나는 접촉빈도는 1주에 적어도 한 번은 만난다는 비율이 27.6%, 3개월에 1회는 27.3%, 1개월에 1회 20.9%, 2주에 1회 14.4%, 6개월에 1회

표 6. 부모님을 모시는 데 따른 어려움 여부 및 종류

(단위: %)

구 분		전국	동부	읍·면부
부모님을 모시는데 따른 어려움	있음	54.1	56.7	48.5
	없음	45.9	43.3	51.5
	계	100.0	100.0	100.0
	(N)	(898)	(618)	(280)
어려움의 종류 <sup>1)</sup>	경제적 어려움	38.2	42.5	27.1
	부모와의 갈등	31.5	30.7	33.5
	자녀양육문제	9.3	9.4	9.1
	부모님 건강상 수발에 따른 어려움	31.4	30.8	33.0
	부모부양으로 인한 부부간의 의견 충돌	11.6	11.4	12.2
	시댁 및 친정식구들의 잦은 방문/의견충돌	6.5	6.8	5.6
	눈치를 봐야하는 어려움	27.9	26.2	32.4
	정신적 부담감	1.4	1.8	0.4
	본인 건강상 이유	0.7	0.7	0.4
	종교적 갈등	0.8	0.7	0.8
	친정식구들이 오지 못하는 점	0.5	0.7	-
	기타	1.0	0.4	2.6

주: 1) 부모님을 모시는데 따른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486명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1998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6.1%, 그리고 기타 3.8%이다. 따라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가구주의 62.9%는 매월 한번 이상은 부모와 만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지역별로 보면 1개월에 한번 이상 만나는 접촉률의 경우 읍·면부지역(69.1%)이 동부지역(61.8%) 보다 조금 더 높다. 이는 읍·면부지역에서 차를 타고 1시간 이내의 거리에 부모가 거주하는 비율이 높

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가구주의 특성에 따른 부모와의 접촉정도를 1개월에 1회 이상의 접촉률로 비교하여 보면 가구주의 연령이 적을수록,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현 취업자 또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접촉 빈도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부모접촉 빈도는 1개월에 1회 이상의 접촉률을 비교

표 7. 가구주의 특성별 비동거 부모와의 접촉빈도

(단위: %)

구 분		주 1회 이상	2주 1회	1개월 1회	3개월 1회	6개월 1회	기타	계 (N)
전체		27.6	14.4	20.9	27.3	6.1	3.8	100.0 (4,746)
지 역	동부	25.8	14.7	21.3	28.3	6.1	3.8	100.0 (4,079)
	읍·면부	38.4	12.6	18.1	21.3	5.8	3.8	100.0 ( 667)
연 령	34세 이하	33.3	16.5	21.4	23.7	3.7	1.4	100.0 (1,823)
	35~44세	25.2	14.9	21.1	28.6	6.4	3.8	100.0 (1,864)
	45~54세	22.0	9.9	19.4	32.3	9.5	6.9	100.0 ( 814)
	55~64세	21.9	10.0	20.6	27.7	9.1	10.7	100.0 ( 245)
교 육 수 준	중학교 이하	23.3	9.5	15.6	29.6	11.9	10.1	100.0 ( 864)
	고등학교	28.1	14.8	19.9	28.3	5.8	3.1	100.0 (1,954)
	전문대 이상	29.1	16.2	24.2	25.1	3.7	1.7	100.0 (1,919)
현 취 업	취업중	28.2	14.6	20.8	27.4	5.7	3.4	100.0 (4,170)
	비취업	23.6	12.6	21.6	26.9	8.8	6.3	100.0 ( 575)
가 구 소 득 (월평균)	79만원 미만	25.1	10.6	17.7	26.5	9.9	10.2	100.0 ( 765)
	80~149만원	28.5	15.3	21.1	26.0	6.0	3.2	100.0 (1,671)
	150~249만원	28.0	14.6	21.0	28.9	5.1	2.3	100.0 (1,575)
	250만원 이상	27.9	15.0	23.6	28.0	4.1	1.4	100.0 ( 683)
거 주 리	걸어서 30분 미만	85.6	7.8	5.3	0.9	-	0.4	100.0 ( 549)
	걸어서 30분~차 타고 1시간 미만	45.0	23.5	20.6	8.8	1.3	0.8	100.0 (1,440)
	차 타고 1~3시간 미만	12.8	19.6	32.4	29.4	3.6	2.2	100.0 (1,232)
	차 타고 3시간 이상	2.3	3.9	17.7	53.4	14.8	8.0	100.0 (1,503)
	해외거주 및 기타	-	-	-	3.2	14.7	82.0	100.0 ( 18)

자료: 1998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 재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하여 보면 34세 이하에서 71.2%, 35~44세 61.2%, 45~54세 51.3%, 55~64세 52.5% 등으로 나타나 연령이 적을수록 부모와의 접촉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1개월에 1회 이상의 접촉률이 중학교 이하에서는 48.4%, 고등학교는 62.8%, 전문대학 이상에서는 69.5%이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접촉빈도가 높다. 또한 현재 취업 중인 가구주의 부모 접촉빈도가 비취업자보다 더 많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의 차이에 따른 접촉빈도는 일정한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이 부모와의 직접접촉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거리에 따른 부모와의 직접 접촉빈도를 주 1회 이상의 접촉을 가지는 비율로 살펴보면 걸어서 30분 미만의 거리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의 접촉률이 85.6%이며, 걸어서 30분~차를 타고 1시간 미만의 경우는 45.0%, 차를 타고 1~3시간 미만은 12.8%, 차를 타고 3시간 이상의 거리 2.3% 등으로 거주거리에 따른 부모와의 직접적 접촉빈도는 큰 차이를 나타내며 거리가 가까울수록 접촉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가구주 부모와의 연락빈도

<표 8>은 동거하지 않는 부모와 얼마나

표 8. 가구주의 특성별 비동거 부모와의 연락빈도

(단위: %)

구 분		하루 1회	주 1회	2주 1회	1개월 1회	3개월 1회	기타	계 (N)
전 체		18.3	56.1	11.6	9.3	2.7	1.9	100.0 (4,745)
지 역	동부	17.3	57.3	11.5	9.1	2.7	2.0	100.0 (4,078)
	읍·면부	24.4	48.7	11.9	10.1	2.8	2.1	100.0 ( 667)
연 령	34세 이하	24.3	62.7	6.2	4.8	1.2	0.8	100.0 (1,822)
	35~44세	14.9	56.4	14.9	9.9	2.5	1.4	100.0 (1,864)
	45~54세	14.2	45.4	15.4	15.8	5.5	3.7	100.0 ( 814)
	55~64세	12.6	40.6	13.9	16.8	7.5	8.7	100.0 ( 245)
교 육 수 준	중학교 이하	13.5	45.3	12.9	16.3	6.1	5.9	100.0 ( 864)
	고등학교	16.7	56.1	13.7	9.2	2.6	1.6	100.0 (1,952)
	전문대 이상	21.8	61.3	8.8	6.1	1.4	0.7	100.0 (1,919)
현 취 업	취업중	18.2	56.8	11.8	8.8	2.6	1.7	100.0 (4,170)
	비취업	18.7	51.6	9.8	12.5	3.6	3.8	100.0 ( 574)
가구소득 (월평균)	79만원 미만	18.2	48.0	11.4	12.1	5.2	5.1	100.0 ( 764)
	80~149만원	18.5	57.3	10.4	9.6	2.7	1.5	100.0 (1,671)
	150~249만원	16.9	58.3	12.9	8.5	1.7	1.6	100.0 (1,575)
	250만원 이상	21.2	58.0	11.5	6.9	2.4	0.1	100.0 ( 681)

자료: 1998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자주 편지 또는 전화 등으로 연락을 하는가를 보여주는데, 하루에 한번 이상 연락을 한다는 비율이 18.3%이며, 1주에 1회 이상 56.1%, 2주에 1회 정도 11.6%, 1개월 1회 9.3%, 3개월 1회 2.7% 등으로 비동거 가구주의 74.4%는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와 1주에 한번 이상의 연락을 주고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를 부모와 주 1회 이상의 연락을 갖는 비율로 비교하면 동부 74.6%, 읍·면부 73.1%로 비슷한 수준이다.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부모와의 연락빈도는 주 1회 이상 연락하고 있는 경우 34세 이하 87.0%, 35~44세 71.3%, 45~54세 59.6%, 55~64세 53.2% 등으로 연령이 적을수록 부모와의 연락빈도가 높다. 교육수준별로 부모와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중학교 이하는 58.8%, 고등학교 72.8%, 전문대학 이상 83.1%이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연락빈도가 높다. 또한 현재 취업 중인 가구주의 부모와의 접촉빈도가 비취업자보다 더 높으며, 중산층 가구가 저소득층보다는 부모와의 연락을 더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결론 및 정책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부양에 따른 경제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에 기반을 둔 가족제도의 장점을 살린 예방적 복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부모와 자녀의 동거 또는 별거라는 물

리적 접촉보다는 접촉에 의한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하므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가. 가족의 부모 부양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의 실시

노부모 부양을 원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부모님을 모시는 데 따른 어려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38.2%)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성원을 위한 연금급여 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부모 봉양수당을 사업장에 실시하는 등 경제적인 보상을 통하여 동거를 촉진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부모와의 갈등에 의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31.5%이므로 세대간의 이해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 전문적 지도와 정서적 후원 프로그램 실시 등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족의 노인부양능력을 강화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확충

가구주의 부모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따로 사는 비율이 42.3%이며, 비동거 부모와의 거주 거리가 차를 타고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비율이 31.7%이다. 또한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가구주의 31.4%가 부모님의 건강 악화로 인하여 수발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노인부양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재가복지서비스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재가복지

서비스가 생활보호 및 저소득층 노인 위주의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일반노인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

노인들이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일방적인 지원만을 받는다는 인식을 바꾸어야 하며, 노인들도 평생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 향상뿐 아니라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모를 모시게 된 동기에서도 나타나듯이 노인들이 손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가족구성원 내에서 의존적이며 일방적인 지원만 받는 존재가 아니고 젊은 세대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인식으로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어야 한다.

#### 라. 다양한 노인전용주택 및 3세대 동거주택 개발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구주의 부모가 자녀와 동거하

고 있는 비율(56.0%)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므로 노인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전용주택 및 3세대 동거주택도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노부모를 모시는 자녀가 3세대 자녀동거주택을 취득할 경우 각종 세제상의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 마. 건강한 노화를 교육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수행

부모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구주의 약 1/4 정도이고, 건강하지 않은 부모님의 수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가구주의 비율도 약 1/3 정도가 되고 있다. 노인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고 있으나 건강상태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건강한 노화의 요소인 육체적 변화에 대한 인식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이해, 건강한 생활스타일의 채택, 일반 질병에 대한 정보 제공, 영양에 대한 교육 등이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에 통합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본문